

서평

## 인삼은 어떻게 ‘한국’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철성, 『작지만 큰 한국사, 인삼』(푸른역사, 2022)-

구도영\*

1. 최근 인삼 관련 역사서가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이 저서들의 제목에서 인삼을 표현하는 문구를 보면,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2016)’, ‘세계상품 인삼(2020)’, ‘작지만 큰 한국사(2022)’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삼만큼 주목받고 비싸게 팔렸던 상품은 없었을 것이다. 재배기술·가공법의 성장과 산업화, 민영화로 우리는 현재 역사시대 중 그 어느 때보다 인삼을 값싸게 섭취하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중국, 일본, 영국 및 프랑스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 ‘블로장생약’, ‘인삼은 은(銀)의 20~250배, 때로는 300배까지 팔린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비의 명약이자 고가의 약재였다.

현재 전세계에서 인삼이 자생하는 곳, 즉 산삼(山蔘)이 생산되는 지역은 딱 두 곳뿐이다. 하나는 한국과 그 북방 인근 지역(북위 30~48°)이며, 또한 곳은 북아메리카의 서경 70~97°사이 지역이다. 산삼은 자생지도 매우

---

\* 具都暎,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0531kdy@hanmail.net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4..391>

제한적인데다, 한반도와 그 북방 지역 일대는 ‘오래된 늙은 땅’으로 지력(地力)이 좋아서, 한국 인삼은 북아메리카 산삼보다 약효가 훨씬 뛰어났다. 과거 한국 산삼은 가히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자연이 준 선물 산삼을 넘어, 그 재배를 실현시키고 가공법도 발전시켜 홍삼(紅蔘)이라는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은 단연 조선인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이철성 교수는 조선 후기 청(淸)과의 무역사를 탐구한 대표적 한국사 연구자이다. 박사논문이 「18·19세기 조선(朝鮮)의 대청무역(對淸貿易) 전개과정(展開過程)에 관한 연구(研究): 모자(帽子)·인삼무역(人蔘貿易)을 둘러싼 역·상 간(譯·商間)의 경쟁을 중심으로」(1997)이며,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경인문화사, 2002)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사에서 조선 후기 경제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에도 중국과의 무역에 천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영역을 두루 살펴야 함은 물론 무역의 재화가 되는 물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가 출간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사에서 그를 대체할만한 조선 후기 무역 전공서적이 출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여전히 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2. 이 책은 저자가 기존 인삼 연구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를 입증하기 위해 논증하는 연구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양서이다. 이는 인삼 연구가 논증의 단계를 넘어, 방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인삼의 한국사를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축적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딱딱하지 않아 술술 읽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저자는 박사논문에서도 인삼을 다루었고, 교편을 잡은 대학이 인삼 전매청 부여 공장과 지근거리여서, 자연스레 인삼 관련한 글을 연재하고 특강도 했다. 이러한 인연이 이 책을 집필할 수 있게 한 기초가 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와 국가의 상징성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음에도 인삼의 위상과 역사를 한국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이 책의 체제는 아래와 같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 우리 생활 속 인삼이야기
- 2장 동아시아를 연결한 인삼로드
- 3장 광저우로 모여든 고려인삼
- 4장 조선 무역의 아이콘, 홍삼
- 5장 근대 유럽에 심은 조선 이미지, 인삼
- 6장 조선 인삼, 미국인삼
- 7장 식민지 조선, 고려인삼의 상징성
- 8장 전매제에서 민영화까지

저자는 책 서문에서 각 장을 완결성 있게 구성하여, 독자가 읽고 싶은 하나의 장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각 장(章)에 절(節)들이 유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사구조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 형태로 되어 있다. 작은 에피소드들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으면서, 각자의 절이 개성을 갖추고 있어 관심 있는 부분만 선택 독서하기도 용이하다.

각 장별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1장은 인삼의 '거시 역사'에 들어가 기에 앞서, 인삼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생활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살피고, 산삼을 캐는 심마니의 생활상, 약재 전문시장의 어제와 오늘, 인삼을 보관한 약장(藥穢)과 인삼이 그려진 그림·산신도·부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물질 문화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역사 전공서적에서는 대체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이 전문 교양서라 더 반가운 이유이다.

2장에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인삼무역의 길을 확인한다. 인삼은 임진왜란 이후 한·중·일을 잇는 동아시아 상품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인삼에

대한 열기가 결국 인삼 재배(가삼, 家蔘)의 출현과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8세기 83세의 장수를 누리며 부지런히 정사에 임한 영조의 건강을 지킨 건공(建功)탕의 핵심 재료가 인삼이었다. 정조는 새로운 가공법이 적용된 홍삼(紅蔘)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신도시 수원 화성 건설과 번영, 민생대책을 위한 재정 마련에 홍삼무역 수익을 활용했다. 19세기 홍삼의 인기로 인해 서해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간 해상 불법무역이 증가하였고, 조선과 중국을 잇는 항로가 점차 인삼 무역항로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인삼은 국가 재정을 충실하게 해주는 주요 상품임은 물론 민간 해상무역에서도 주요 상품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장에서는 청나라 주요 무역항 광저우(廣州)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가 종횡으로 펼쳐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조선 사행은 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 인삼을 팔지만, 홍삼의 최대 시장이자 소비지는 남쪽의 광저우였다. 주지하다시피 광저우는 아편전쟁 발발 전 약 80년 간 청의 대외무역을 독점했던 무역도시였고, 당시 유럽 상인들은 광저우를 베이징, 런던에 이어 세계 제3의 도시라 지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광저우에는 조선인삼, 미국인삼 등이 모두 모였고, 조선인삼은 광저우 시장을 통해 서양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

19세기 홍삼은 천주교 선교사의 선물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나라에서는 인삼이 아편 중독에 효험이 있다고 인지하여, 아편전쟁 전후 조선 홍삼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의 개혁군주이자 자식을 142명이나 두었던 민 망 황제도 조선인삼을 특히 사랑하였다. 한편 중국 광둥 지역 상인과 태국 상인이 요동반도의 잉커우(營口)까지 올라와 조선홍삼을 구입하고 내려가는 길에 배가 난파되어 조그만 보트로 갈아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챙겼던 상품이 홍삼이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당시 중국과 동남아시아 상인이 잉커우까지 북상하여 홍삼을 구입하였다는 점도 흥미로우며, 조선 인삼이 이들을 통해 홍콩, 광저우를 거쳐 동남아시아와 서구까지 수출되었던 역사도 알 수 있었다.

4장은 조선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 마련을 위해 홍삼무역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개항 이후 중국, 미국, 프랑스 상인이 홍삼 무역을 위해 인천 개항장으로 몰려들었다. 조선은 근대 시기 국가 개혁에 소용되는 막대한 재원을 홍삼 수출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와 고종 시기 부국강병을 위한 군비 증강, 왕실재정, 국왕 비자금 등 홍삼은 조선의 가장 확실한 자원 조달품이었다. 홍삼은 대한 제국 시기 국가 전매(專賣) 상품이 되었고, 개성 인삼 상인들의 반발 속에 홍삼 전매를 오랜 기간 도맡았던 관료 이용익의 활동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5장에서는 근대 서구사회 지식인들의 조선 인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의 한국 유물 목록, 조선을 여행한 영국 영사 칼스와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첫 여성회원 비숍의 인삼 인식,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연구 결과서 <한국지> 속의 고려인삼, 오스트리아 헤세바르텍의 조선인식과 인삼, 헝가리 민속학자 버라토시의 조선 인식과 인삼, 스웨덴 박물관학 권위자 슈텐 베리만이 남긴 인삼 기록 등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에서 만병통치약이자 영약으로 각인된 조선 인삼의 위상과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삼 에피소드를 담았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조선 인삼 종자나 묘종을 수입하여 재배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적하였고, 고려인삼이 미국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정황을 통해 당시 조선의 박람회 참석 목적과 상품화에 대한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7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전매국의 홍삼(紅蔘) 산업 항방과 조선인의 백삼(白蔘) 산업에 대해 설명한다.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은 약효 좋은 조선 인삼의 상징이자 브랜드가 되어,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삼이 아닌 고려인삼으로 외국시장에 판매되었다. 조선총독부 전매국은 품질 좋은 수삼(水蔘)을 수매하여 증조법(蒸造法)으로 홍삼으로 만들었고, 전매국이 수매하지 않은 수삼은 경작자 조선인이 건조시켜서 백삼(白蔘) 형태로 만들어 처분하였다.

당시 홍삼은 조선총독부 전매국의 상품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배를 불러주었는데, 홍삼이 되지 못한 백삼은 식민지 시대 개성 조선 사업가의 자본이 되었다. 한편 충남 금산의 근대 시기 백삼산업의 성장도 확인할 수 있다.

8장은 광복 이후 인삼이 한국전쟁의 고비를 넘는 한편, 홍삼이 전매제에서 민영화로 이행되는 현대사 과정을 담고 있다. 전매제와 민영화의 분기점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어렵지만, 전매제를 대한제국 정부가 궁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를 설치한 1899년 시기부터, 민영화를 민간기업도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추면 홍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경쟁 체제가 만들어진 2000년 즈음이라 본다면, 홍삼 전매제는 약 100년 만에 민영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현대 홍삼 전매제의 빛과 그림자를 고민하게 한다.

3. 위의 각 장별 내용과 같이, 이 책의 주요 분석 시기는 18~20세기로, 인삼 관련 자료가 풍성한 19세기 전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동서양을 오간 인삼의 세계사는 물론 일제강점기를 거쳐 발전해 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 산업의 현황까지가 자연스레 이해된다. 정조의 수원화성 건축에 들어간 비용,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군비 증강 개혁 자금과 정치 비자금, 일제강점기 미쓰이 물산의 홍삼 전매 수익,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자금이 된 홍삼의 이야기 등 '작지만 거대한 인삼'이 한국의 각종 역사와 그것을 이룩하게 한 국가 재정에 얼마나 깊게 관여되어 있었는지 현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조선시대 인삼수익이 국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세액 등 재정사적 측면을 보면, 조선 말기 약재 홍삼이 오늘날 반도체 산업에 비견될 최고의 수출상품이었다는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책은 저자가 천착해온 연구 관점을 견지한 가운데 19세기 광저우,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한국 홍삼이 어떻게 유통되고 인식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수렴하여, 외국에서 인삼이 조선을 어떻게 상징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 저서는 특별히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여기에서는 통사적 서술에서 간혹 놓칠 수 있는 일부 대목을 짚고자 한다. 저자는 72쪽에서 가삼(家蔘) 재배가 성행하자 그에 대한 가공기술이 발전해 나갔다고 하면서 백삼, 파삼, 홍삼을 그 예로 설명하고 있다. 서문에서도 인삼 제조법에 따라 홍삼, 백삼, 곡삼, 반곡삼, 체삼, 미삼 등으로 다채롭게 부르기 시작한 것은 가삼(재배인삼)이 인삼이 된 이후라고 하였다(7쪽).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백삼은 산에서 캔 산삼의 보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씻고 건조시켜 함수량을 낮춘 방식으로 가공된 인삼을 뜻했다. 조선 전기에 이미 백삼이라는 인삼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가장 널리 활용되던 가공법이다. 파삼은 인삼을 살짝 데친 뒤 건조시킨 가공법으로, 고려 시대 송나라 사신의 견문기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도 확인된다. 즉 홍삼을 제외하면 백삼, 파삼 모두 가삼이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던 인삼 가공법인데, 저자는 18세기 가삼 이후의 역사에 주목하다보니 이전부터 있었던 인삼 가공법이 마치 18세기에 일제 시작했다는 오해의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명나라 사람들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파삼을 선호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명나라 상인이 외국인 조선에서 인삼을 수입한 뒤, 다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각 지역에 인삼을 유통시키려면 무엇보다 보존성이 중요했다. 명나라 시기 중국 내 최대 인삼 소비지는 더운 강남 지역과 광둥 지역이었다. 이에 중국에서는 부패 속도가 더딘 파삼을 선호했던 반면, 인삼 산지인 조선에서는 약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백삼을 선호하였다. 백삼은 데치는 과정이 없어, 국물에 인삼 성분이 우러나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료가 방대한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집중하고 있어, 부득이 17세기 이전 내용은 소략한 측면이 있다.

이 책은 인삼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다양하게 품고 있는데, 교양서의 특성상 미주가 적어 이 책을 인삼사 연구의 디딤돌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을 연구 목적이거나 대학 교양강좌의 교재로 활용하다 보면 각 내용에 대한 근거가 궁금해지게 마련인데, 이를 확인하려

면 기존 연구 논저를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전문 교양서의 일반적인 특징이지 이 책의 한계는 결코 아니다. 다만 이 책과 같이 인삼이라는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여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경제 문화사를 관통하며 한 권에 정리한 한국사 연구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며, 이는 그만큼 이 책이 갖고 있는 목적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지만 큰 한국사, 인삼』은 조선시대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경제사를 근간으로 하여, 조선 후기 이후 인삼에 대한 인식, 한국 인삼의 확장성과 상품성, 세계성을 담아냈다. 더불어 조선 인삼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한편으로 일제강점기와 분단,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격동의 시대 속에서 인삼업의 맥이 끊기지 않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최고의 인삼 중주국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꼬덕일 수 있게 해준다. 그의 조선-청나라 간의 무역사를 대체할 저서가 아직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저서임이 분명하다. 한국 물질문화와 무역사, 재정사, 의약사 등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